

상담경력과 상담자소진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상담자 비교연구*

이 자 영 남 속 경 박 희 락 김 동 현 이 미 경 이 상 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상담경력과 상담자소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상담자들 총 488명(한국 192명, 미국 296명)을 대상으로 상담자소진척도(CBI; Counselor Burnout Inventory) 5개의 하위척도들과 상담자들이 보고한 상담경력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두 변인간의 관계를 선형적 관계 뿐만 아니라 곡선형(curvilinear)관계로도 함께 고려해 분석한 결과, 두개의 소진 하위변인들(한국: 내담자 가치저하; 미국: 비협조적 직무환경)에서는 선형모형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곡선형 모형에서는 경력 변인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였다. 즉, 이들 변인에서는 선형 모형에 비해 곡선형 모형에서의 모형적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소진과 관련된 변인을 연구할 때, 비선형적인 통계적 모형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요어 : 상담경력, 상담자소진, 비교연구, 곡선형관계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BK21 교육학국제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본인의 연구자료를 제공해 준 텍사스주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유금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Tel : 02) 3290-2306, E-mail : leesang@korea.ac.kr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인간이 갖게 된 다양한 질병들이 신체적인 측면의 결합에서 오기도 하지만, 정신적 측면의 불균형 상태에서도 기인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람들은 보다 행복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위해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보여 왔다(장연집 외, 2003). 특히 상담자는 심리학적 개입을 통해 내담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바꾸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Romano, 1984) 내담자의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혜운, 정남운, 2003).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Ivancevich & Matteson, 1980; Maslach, 1982). 특히 상담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도록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관리의 욕구를 간과하고, 내담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오므로(O'Halloran & Linton, 2000), 자신의 정신적 건강은 간과하게 된다. 또한 상담자들이 당면하는 내담자들의 문제는 항상 명백하거나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이는 결국 소진(Burnout)을 야기한다.

소진이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업무요구로 심리적, 사회적 및 신체적 문제를 도와주는 인간서비스 계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 고갈 상태를 의미하며(Freudenberger, 1974), 이러한 소진은 열성(enthusiasm), 침체(stagnation), 좌절(frustration)을 거쳐 결국에는 무관심(apathy)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Edelwich & Brodsky, 1983).

그 결과 소진된 상담자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무력감, 절망감 등 좌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을 돌보는 것에 무관심해지며(Maslach, 1982), 전문가로서 상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활기가 사라지게 된다(Corey, 1999).

소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3가지 특성, 즉 직무 환경적 특성,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그리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규명되고 있다(김보라, 2002; 여선영, 2006; 장기보, 2003). 먼저 직무 환경적 특성과 소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에 대한 기대와 실제 업무가 불일치하는 역할 갈등이 심하거나(이경순, 1983; 최혜영, 1994; Um & Harrison, 1998)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 및 능력의 부족할 때(Sidentop, LaMaster, Gall, & Kinchin, 1998) 심리적 소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이 모호하거나(Rizzo, House, & Lirtzman, 1970) 보상 및 승진이 낮고(심숙영, 1999; Jayaratne & Chess, 1984; Pines & Aronson, 1988, Schram & Mandell, 1997) 일 자체가 도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Heifetz & Bersani, 1983) 심리적으로 높은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동일한 조건의 스트레스에서 개인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공감적, 인간적, 헌신적, 이상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인간 지향적이면서 동시에 내향적이고 타인과 쉽게 동일화되기 때문에 소진이 더 많이 된다고 하였다(Chermis, 1988; Farber, 1984; Freudenberger, 1981). 또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Kafry, 1981), 자신감이 적고 소극적이며 참을성이 적은 사람(여선영, 2006; de Rijk, Leblanc, Schaufeli, & de Jonge, 1998; Maslach, 1982),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외향적인 통제외식의 사람(McIntyre, 1981)들이 더

많은 소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연령, 성별, 결혼 유무, 경력과 소진간의 관계가 주로 연구되어왔다. 연령이 낮을수록(신지음, 1990; 유정혜, 1997; Arker, 1999), 남성보다는 여성이(Maslach et al., 2001), 결혼을 안 한 사람(고은아, 2001; 조성연, 2005; Maslach, 1982),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조성연, 2005; 최혜윤, 정남운, 2003; Maslach et al., 2001) 더 많이 소진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진 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재순, 2002; 박희현, 2006; Mills & Hyebner, 1999; Shaddock & van Limbeek, 1998).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력을 들 수 있다. 상담자 발달이론 또는 슈퍼비전 발달이론에 관한 연구들은 심리발달이론(Erickson, 1963; Mahler, 1979)에 토대를 두고 상담자가 교육을 받고 상담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학자에 따라 몇 단계나 수준으로 나누고 그 특성에 적합한 차별적인 슈퍼비전 환경을 제안하고 있다(신종임 외, 2006). 최근 상담자 소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상담자의 소진이 상담성과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담자 교육시 상담자의 소진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유성경·박성호, 2002; 최윤미 외, 2002),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또한 경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상담 역사는 미국에 비해 기간이 짧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상담자의 인식, 특성, 어려움 등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노안영, 1998; 서영석, 2005; 주은선, 1998), 그 결과 한국적인 상담모형 개

발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이상민외, 2007; 이영희, 1982; 장성숙, 1999, 2000).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상담이론은 미국에서 받아들여져 와서 한국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과 소진과의 관계를 한국과 미국의 상담자를 비교함으로써 미국 상담자와는 다른 한국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담자와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서비스 직업의 종사자들의 소진과 경력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보육교사는 둘 다 경력이 적을수록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숙영, 1999; 조성연, 2005; 한임순외 1997; 한임순·김향자, 1998; Fuqua & Conture, 1986).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사의 경우 경력과 소진 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권복순, 1986) 미국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일을 시작한 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소진을 경험하기 시작하여,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Capaln & Jones, 1975; Freudenberger, 1975). 교사의 경우에도 한국 교사의 경우에는 김장섭(2004)의 경우 경력이 6-15년일 때 소진이 가장 높다고 한 반면에 최수형(2004)은 경력과 소진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 반면에 미국의 교사는 경력이 13-24년일 때 소진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Anderson & Iwanicki, 1984).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은하(2001), 최윤미 외(2002), 최혜윤(2002)이 숙련상담자가 초보상담자보다 개인적 직무관련 성취감은 더 경험하였으나 정서적 소모나 비인간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 반면에 이영란(2006)은 소진과 경력간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하위척도로 구분하지 않고 소진의 총점을 비교한 박정해(2006)의 연구에서는 1년 미만의 상담자가 10년 이상의 경력자보다 더 많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상담센터 스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박사후 경력이 적을수록 정서적 소모가 더 큰 반면 성취감이나 비인간화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ss, Altmaier & Russell, 1989) 미국의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20년 이하 경력의 학교상담자보다 30년 이상의 학교 상담자가 개인적 성취감이 더 낮았으며, 20-29년의 학교상담자가 9년 이하의 상담자에 비해 더 높게 내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tler & Constantine, 200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사, 교사, 상담자 등 같은 대상을 상대로 소진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한국과 미국 간 또는 경력에 따라 소진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담경력과 상담자 소진과의 관계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첫째, 지금까지 경력에 대한 연구들이 단순히 경력이 높고 낮음에 따른 소진과의 상관관계만을 보거나 경력을 연구마다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력과 소진을 선형적 관계 뿐 아니라 곡선형¹⁾(curvilinear)관계로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장섭(2004), Anderson & Iwanick(1984)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박정애(2006), Butler & Constantine(2005)의 연구 결과들은 경력에 따라 상담자 소진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에 따라 상담자 소진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 경력을 특정 기준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연속선상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력과 소진을 곡선형 관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경력과 소진을 곡선형 관계로 분석함으로써 상담자 경력에 따른 소진 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상담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상담자가 경력과 상담자 소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비교함으로써 상담자 소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상담자의 경력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한국 상담자와 미국 상담자를 구분하여 비교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수퍼비전을 하거나 추후 경력에 따른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상담자(여기서 상담자라 함은 상담경력이 1년 이상이고, 상담관련학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학사학위소지자라고 응답

1) 비선형(non-linear)이라고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하 곡선형이라 명명함

한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총 488명(한국 192명, 미국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상담자의 경우 전국에 있는 상담소(국가기관과 사설기관), 대학상담센터에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 중 상담경력이 1년 미만인 상담자와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설문은 제외되었다. 미국 상담자의 경우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웹기반 설문(<http://counselingsurveys.org>)을 통해 자료를 수거하였고 미완성된 응답은 역시 제외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응답자를 성별로 보면, 한국 상담자의 81.8%가 여성, 18.2%가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의 상담자 역시 여성이 75.9%로 표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남성은 2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현재 한국과 미국 전체 상담자 중 여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대체로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단일민

족이기 때문에 따로 인종에 관한 문항을 두지 않았으며, 미국은 인종적 배경 측면에서 살펴볼 때 95.2%가 백인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1%가 흑인, 1.0%가 히스패닉계, 그리고 1.7%가 기타 응답자들이었다. 전문상담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한국 응답자의 53.1%가 아동·청소년 상담자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상담자 26.0%, 학교 상담자 2.6%, 정신건강 상담자 2.1%, 진로 상담자 1.6%, 기타 응답이 14.6%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에 따르면 한국 상담자 중 아동·여성관련 상담기관 종사자 비율이 20%,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 비율이 29.3%로 아동·청소년·여성 상담관련 종사자가 전체 상담자의 49.3% 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상담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53.1%이라는 결과와 근사한 값으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체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43.2%가 학교상담자, 25.3%가 정신건강 상담자, 9.0%가 가족상담자, 7.6%가 대학상담자,

표 1. 한국과 미국 상담자의 성별 및 상담분야

| 한국 (n = 192) | | | 미국 (n = 296) | | |
|--------------|----------------------------------|--------------|--------------|-----------------------------------|--------------|
| 성별 | 여성 157(81.8%) | 남성 35(18.2%) | 성별 | 여성 225(75.9%) | 남성 71(24.1%) |
| 연령범위 | 25세 - 53세 (M = 35.71, SD = 5.81) | | 연령범위 | 23세 - 67세 (M = 43.79, SD = 12.40) | |
| 경력년수 | 1년 - 17년 (M= 6.24, SD= 4.19) | | 경력년수 | 1년 - 37년 (M = 12.40, SD = 8.76) | |
| 순위 | 상담분야 | | 순위 | 상담분야 | |
| 1 | 아동, 청소년 상담 | 102(53.1%) | 1 | 학교상담 | 128(43.2%) |
| 2 | 대학상담 | 50(26.0%) | 2 | 정신건강 | 75(25.3%) |
| 3 | 학교상담 | 5(2.6%) | 3 | 가족상담 | 27(9.0%) |
| 4 | 정신건강 상담 | 4(2.1%) | 4 | 대학상담 | 22(7.6%) |
| 5 | 진로상담 | 3(1.6%) | 5 | 사회복지상담 | 12(4.1%) |
| 6 | 기타 | 28(14.6%) | 6 | 진로상담 | 4(1.5%) |
| | | | 7 | 기타 | 28(9.3%) |

4.1%가 사회복지상담자, 1.5%가 진로상담자 순이며 그 밖의 응답이 9.3%였다. 미국의 Department of Labor(2006)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상담자 중 학교상담자의 비율이 41.3%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역시 43.2%가 학교상담자라고 응답한 본 연구의 표본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담자의 연령 범위는, 한국의 경우 25세부터 53세($M = 35.71, SD = 5.81$)까지의 범위에 위치한 반면, 미국은 23세부터 67세까지로($M = 43.79, SD = 12.40$) 한국에 비해 표집대상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담자의 상담경력 역시 한국의 응답자의 경력은 1년에서부터 17년($M = 6.24, SD = 4.19$)까지의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미국 상담자의 경력은 적게는 1년부터 많게는 37년($M = 12.40, SD = 8.76$)까지의 해당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상담자소진척도(Counselor Burnout Inventory; Lee, Baker, Cho, Heckatorn, Holland, Newgent et al., 2007)가 사용되었다. 상담자소진척도는 상담자의 소진정도를 재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최근까지 상담자의 소진을 쟁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된 척도는 Maslach Burnout Inventory - Human Services Survey(MBI-HSS; Maslach & Jackson, 1981)였다. MBI-HSS척도가 상담자의 소진을 재는 데 있어 많은 부분 겹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척도의 경우 상담자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아니기에 그에 대한 한계 역시 논의되어 왔다. 또한 Maslach의 소진척도는 상담이라는 직무환경 내에서의 소진관련 문항들을 측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상담자 소진을 정확하게 재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Yu, Lee, & Lee, 2007). CBI(Counselor Burnout Inventory; Lee et al., 2007)는 총 20개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BI의 문항들은 직무소진의 다양한 수준을 보여주는 감정과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자소진척도(CBI)의 첫 번째 하위척도인 *신체적 피로감*은 상담자라는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인 피로감과 탈진정도를 재고 있으며 “상담자라는 직업 때문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에 피곤함을 느낀다” 혹은 “상담자라는 직업이 나를 진 빠지게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하위척도인 *무능감*은 상담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내적인 효능감 정도를 재고 있다. 이 요인을 재기 위한 문항에는 “나는 내가 능력이 없는 상담자로 여겨진다”, 혹은 “상담자로서의 나의 능력에 실망해간다” 등이 있다. 세 번째 하위척도는 *비협조적 직무환경* 요인으로 상담 직무환경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혹은 “직장상사 또는 수퍼바이저에게 깔끄러움을 느낀다” 등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하위척도는 *내담자 가치저하* 요인으로 상담자가 가지는 내담자에 대한 태도와 지각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나는 내담자와 그들의 문제에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 혹은 “나는 내담자들에 대해 점차 무뎌져 간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하위척도인 *사생활 악화*는 상담자라는 직업으로 인한 내담자의 개인적인 삶의 영향 정도를 재고 있는데, “나

는 상담자로 일하면서 가족에게 소홀해져 간다” 혹은 “나는 일과 내 개인생활의 영역을 분명하게 선 긋기가 어렵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와 그의 동료들(2007)은 다섯 개의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3에서 .85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성타당도의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획득되었으며 이와 함께 적합도검증(goodness of fit indexes) 또한 자료에 대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Yu(2007)는 Lee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상담자소진척도의 기존 문항과 요인구조를 그대로 살려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후 한국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상담자소진척도를 타당화 하였다. 이러한 CBI의 교차번역(CBI의 한국어 버전을 다시 영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과정에서 한국판 상담자소진척도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Yu(2007)의 연구에 따르면, 5가지 하위척도의 내적일치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의 α 계수가 신체적 피로감 .83, 무능감 .85, 비협조적 직무환경 .83, 내담자 가치저하 .81, 사생활 악화 .78 로 각각 나타났고 전체문항 α 계수는 .92 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상담자소진척도 역시 기존 CBI와 마찬가지로 강한 내적일치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Yu(2007)는 한국판 상담자 소진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소진척도의 요인구조역시 이전 CBI와 동일한 5가지 하위 요인이 적합할지를 검증하기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5요인 모델과 대안적인 모델로써 1요인 모델의 모형 적합도(goodness of fit)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의 CBI와 같이 5요인구조가 더욱 나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chi^2/df = 2.024$; CFI: .922; RMSR: .044).

결 과

먼저 한국과 미국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총 488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경력과 상담자 소진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후,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의 추정을 위해 SPSS에 있는 곡선추정방법(curve estimation method)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일차항 함수식을 사용하는 일반선형 회귀분석과 같이 이차항 함수식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R^2 값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상담자 소진이 경력에 따라 이차항 모형(quadratic model)을 띠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곡선추정 회귀통계량과 모형을 산출하는 곡선추정(curve estimation)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를 보면, 한국 상담자의 경우 상담경력과 무능감 척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r = -.263, p < .01$). 다른 상담자 소진의 하위척도들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미국 상담자의 경우 신체적 피로감($r = -.154, p < .01$)과 무능감($r = -.254, p < .01$)이 상담자의 경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우 상담자의 경력이 증가할수록 무능감을 덜 느끼게 됨을 알 수 있었고, 미국의 경우는 무능감이 감소됨과 동시에 업무를 통한 신체적 피로감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경력과 상담자

표 2. 한국 상담자의 상담경력과 소진의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

| | 한국상담자의 상담경력 | 미국상담자의 상담경력 |
|-----------|-------------|-------------|
| 신체적 피로감 | -.101 | -.154** |
| 무능감 | -.263** | -.254** |
| 비협조적 직무환경 | -.110 | -.075 |
| 내담자 가치저하 | -.127 | .038 |
| 사생활 악화 | .005 | .014 |

** $p < .01$

소진 하위척도간의 상관정도가 다소간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두 변인간의 대안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상담경력에 따른 상담자 소진의 정도가 상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진이 정도가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단순한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가 아니라 상담자의 경력을 초급, 중급, 숙련상담자 집단 등으로 분류한다면, 어떤 특정 경력집단에서 가장 소진이 많이

되는 비선형 관계는 아닐까하는 가정(김장섭, 2004; Anderson & Iwanicki, 1984)을 해 보았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상담경력과 상담자 소진의 다섯 개의 하위척도들 간에 곡선형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 or non-linear relationship)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몇몇 상담자 소진 하위척도와 상담경력과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보다 곡선적 관계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더 나은 설명력을 가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의 상담자 집단의 경우 선형적 관계모형으로 보았을 때 무능감 변인만이 상담경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r = -.263, R^2 = .069, p < .01$), 곡선적 관계모형으로 보았을 때는 무능감 변인($r = -.268, R^2 = .072, p < .01$) 이외에도 내담자 가치저하 변인($r = .184, R^2 = .034, p < .05$)이 상담경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내담자 가치저하 변인에서, 선형적 관계모형의 경우 상담경력변인이 0.9%의 설명력($R^2 = .009, p = n.s$)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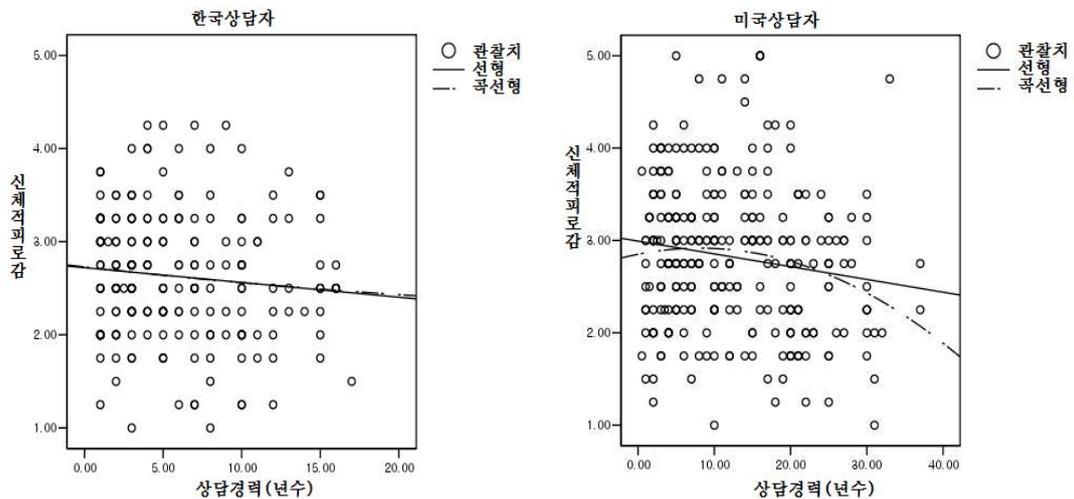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미국상담자의 상담경력(년수)과 신체적 피로감 척도의 선형, 곡선형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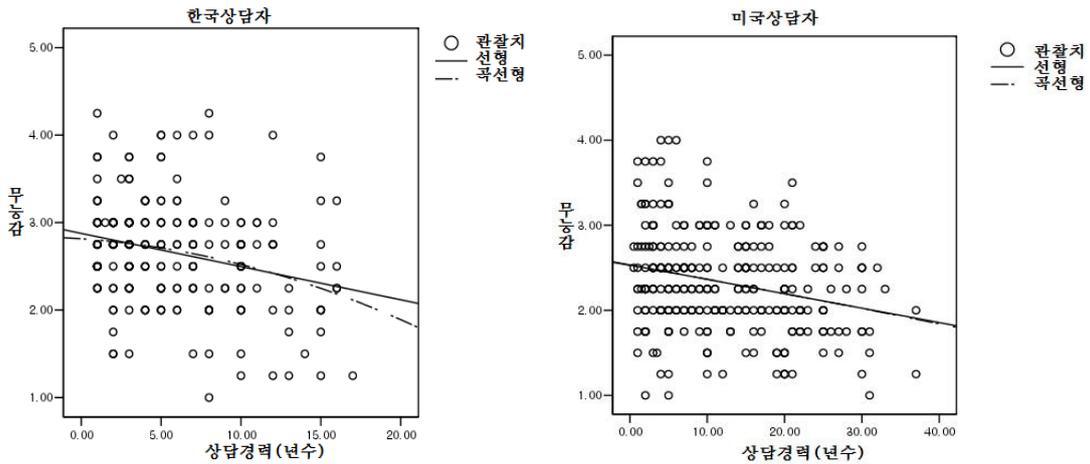


그림 2. 한국과 미국상담자의 상담경력과 무능감 척도의 선형, 곡선형 관계

을 지닌 반면 곡선적 관계모형일 때는 3.4%의 설명력($R^2 = .034, p < 0.05$)으로 그 통계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Delta R^2 = .025$).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상담자의 경우, 곡선적 관계모형이 상담경력과 내담자 가치제하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높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의 산포도 그래프 역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즉, 상담경력

이 10년 정도까지는 내담자 가치제하변인의 점수가 증가하다가 10년 이후부터는 그 점수가 천천히 낮아지는 말굽형(\cap)형태의 관계를 보였다. 무능감변인의 경우는 선형적 관계모형과 곡선적 관계모형간의 설명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Delta R^2 = .003$). 즉, 상담경력이 증가할수록 무능감 정도 역시 직선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참조). 한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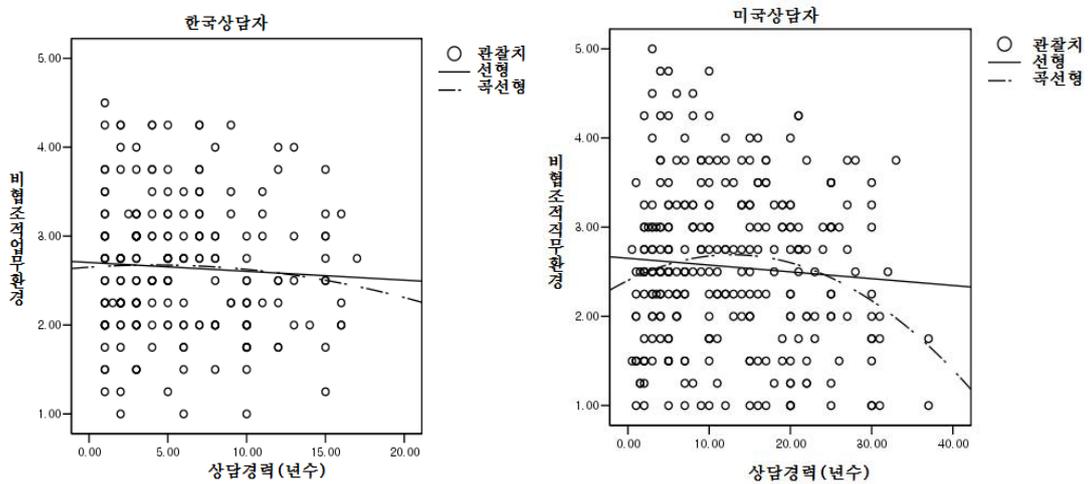


그림 3. 한국과 미국상담자의 상담경력과 비협조적 직무환경 척도의 선형, 곡선형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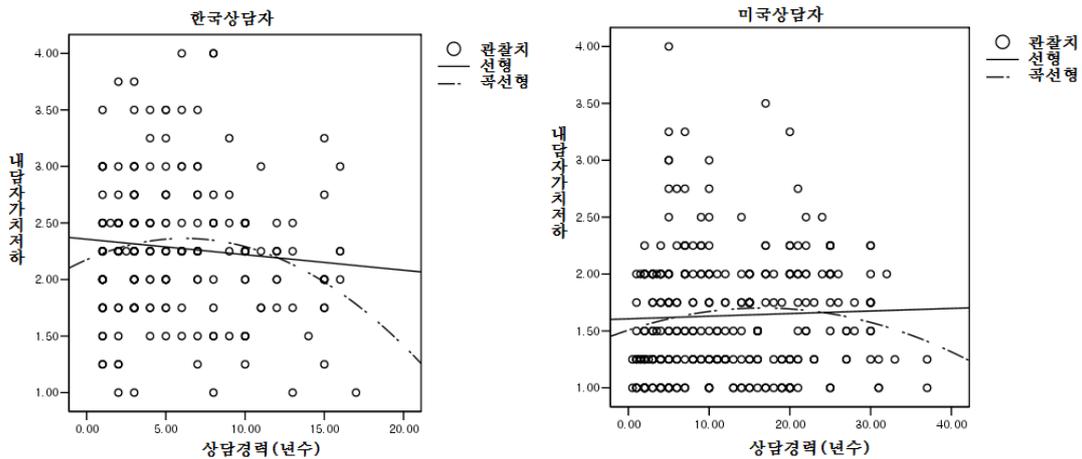


그림 4. 한국과 미국상담자의 상담경력과 내담자 가치저하 척도의 선형, 곡선형 관계

담자의 경우, 나머지 세 하위척도변인(신체적 피로감, 비협조적 직무환경, 사생활 악화)과 상담경력변인간의 관계가 직선형모형과 곡선형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3, 그림 5 참조).

미국상담자의 경우는 곡선적 관계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상담자 소진의 하위척도에 대한 상담경력 변인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

로 나타났다. 즉, 모든 척도들이 선형적 관계 모형일 때 보다 곡선적 관계모형에서 높은 상관계수와 설명력을 보였으며, 특히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적 관계모형($r = -.075$, $R^2 = .006$, $p < .05$)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비협조적 직무환경 변인이 곡선적 관계모형($r = .170$, $R^2 = .029$, $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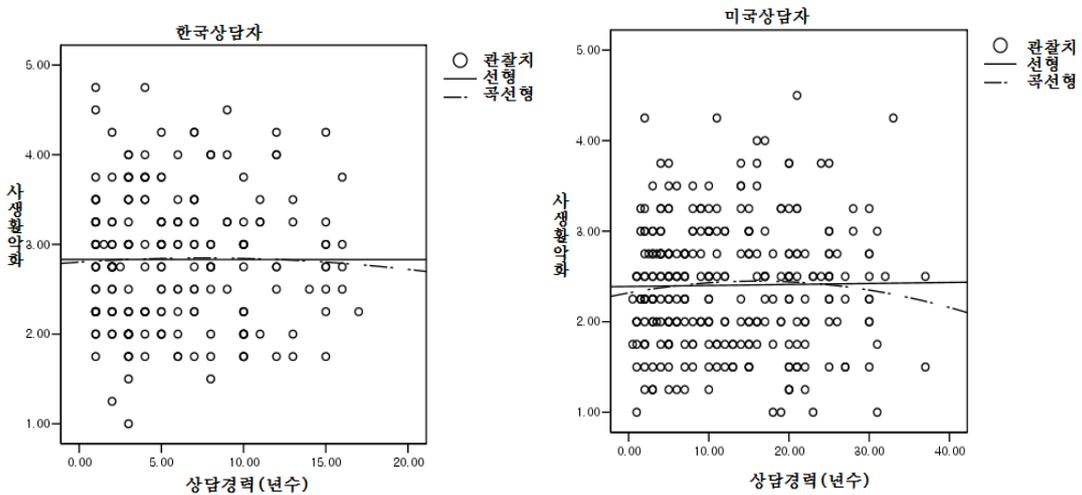


그림 5. 한국과 미국상담자의 상담경력과 사생활악화 척도의 선형, 곡선형 관계

($\Delta R^2 = .023$). 그림 2를 보면, 무능감 변인의 경우 한국상담자와 비슷하게 상담경력이 증가할수록 무능감 점수 역시 직선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신체적 피로감 변인의 경우는 상담경력 20년 정도까지는 점수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년 이후부터 그 점수가 천천히 낮아지는 그래프 형태(그림 1 참조)를 띠었다. 내담자 가치저하 변인의 경우는 한국의 상담자와 비슷하게 상담경력이 10년 정도까지는 내담자 가치저하변인의 점수가 증가하다가 20년 이후부터는 그 점수가 천천히 낮아지는 말굽형(\cap)형태의 관계를 보였다(그림 4 참조). 한국의 상담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담자 역시 사생활 악화변인과 상담경력변인간의 관계는 직선형모형과 곡선형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경력에 따른 상담자 소진정도를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선형적 모형만을 이용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분석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곡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추가 분석하였다. 몇몇 상담자 소진 하위척도(한국: 내담자 가치저하; 미국: 비협조적 직무환경)의 경우, 선형적 모형에서는 상담 경력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곡선형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형 모형에 비해 곡선형 모형에서의 모형적합도(R^2)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소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문화를 고려한 다차원적인 통계적 모

형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과 미국상담자의 경력과 상담소진하위 척도 관계에 있어 나라별 구체적인 변인들 간에서 역시 유사성과 상이성을 보였다. 한국과 미국 상담자 모두에서 경력에 따라 무능감의 소진하위척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경력과 내담자 가치저하 소진하위 척도의 관계는 한국의 상담자들에게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적 피로감, 비협조적 직무환경 소진하위척도는 미국의 상담자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악화 소진하위척도는 두 나라 모두에서 상담경력과의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 양상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상담경력과의 직선적인 부적관계를 보였던 무능감 변인의 경우에는 특히, 경력년수가 짧은 상담자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 예를 들어, 상담관계에서 겪는 모호함, 종결의 부족으로 성공했다는 느낌이 분명치 않은 것, 불가피한 실패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Skovholt(2003)의 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상담경력이 증가할수록 상담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최윤미 외(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내담자 가치저하 변인의 경우, 한국 상담자의 경우 선형적 관계모형이 아닌 곡선적 관계모형으로 분석할 때 상담경력과의 관계를 보다 높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경력이 10년 정도까지는 내담자 가치저하변인의 점수가 증가하다가 10년 이후부터는 그 점수가 천천히 낮아지는 말굽형(\cap)형태의 관계를 보였다. 미국상담자의 경우 역시 비록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즉, 내담자 가치저하변인의 점수가

상담경력 1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년 이후부터는 그 점수가 천천히 낮아지는 말굽형(∩)형태의 양상을 띠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경력변인이 내담자를 비인격화하는 경향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이전 연구들(박정애, 2006; Cherniss, 1982; Farber, 1983; Maslach, 1982; Pines et al., 1981)과 이러한 결과와는 상이하게 오히려 두 변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이전 연구(Butler & Constantine, 2005)의 결과를 통합하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Hellman과 그의 동료(1986)들은 내담자들의 부정적인 행동 및 태도를 많이 경험하게 된 상담자들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좀 더 많은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상담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상담자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초보상담자의 경우, 상담경력이 내담자 가치저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내담자에 대한 가치저하가 증가하다가 다시 어느 수준에서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띠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경력이 긴 숙련된 상담자들일수록 정서적 에너지 고갈이 적고 내담자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Ackerley와 그의 동료들(1988)의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미국상담자의 경우 상담경력에 따라 신체적 피로감과 비협조적 직무환경 변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곡선형 모형일 때 그 설명력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련상담자의 경우, 상담경력이 신체적 피로감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서적 고갈과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밝힌 Susan과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무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전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Gary & Randi, 1989; Maslach et al., 1997). 이러한 결과와는 상반되게 한국상담자의 경우 상담경력과 신체적 피로감 그리고 비협조적 직무환경 변인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상담경력과 상담자 소진간의 관계에 있어 미국상담자와 한국 상담자간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먼저, 연구자는 상담자 표집대상에서의 차이가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한국 상담자의 경우는 많은 응답자가 아동·청소년 상담(54.3%)이 자신의 영역을 밝힌 반면, 미국상담자들은 대부분이 학교상담자(43.2%)라고 보고하였다. Butler와 Constantine(2005)는 미국의 학교상담자들은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상담자(예: 대학상담센터)에 비해 다중 업무 수행(예: 행정업무)으로 인해 오는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표집의 절반정도가 학교상담자인 미국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담경력과 신체적 피로감과 비협조적 직무환경 변인 간에 곡선형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두 집단에서 나타난 다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즉, 초보상담자에서 중급상담자가 될 때까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직장상사와 동료(예: 교장과 교사)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맺다가 숙련상담자가 되면서 점차 자신의 역할과 관계를 찾아나가며 협조적인 직무환경을 이끌어내는 미국의 학교상담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상담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상담 영역에 근무

하는 상담자가 연구대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상담 영역의 상담자의 경우, 학교상담자와 같이 상이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교사, 행정가, 학생)이기보다는 모두 다 상담이라는 같은 직무를 지닌 사람들의 집단이기에 직무의 성격상 상담경력에 따라 직무환경의 변화나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이 된 미국 상담자들의 경력년수는 평균 12.40년으로, 한국상담자 평균 5.87년에 비해, 매우 길다는 점이 두 나라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력년수의 차이가 상담자 경력관련 소진하위척도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상담의 역사가 길고 따라서 오랜 경력을 지닌 상담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표본의 평균연령대가 높고 경력년수가 길다. 이는 연구자들이 두 나라의 상담자 하위척도 산포도 비교 시 가로축 급간을 달리하게 된 이유가 되었고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것이다. 한편 아시아인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가족의 평화와 조화를 어지럽히는 감정들을 숨기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Caudill & Weinstein, 1966; Sue, 1973), 아시아 문화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과묵하고 감정표출을 꺼리는 성격을 발전시키게 된다(Leong, 1992; Uba, 1994). 따라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정표출에 자유롭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상담자들이 비협조적 직무 환경 혹은 신체적 피로감 소진 변인에 있어 상담경력이 증가한다고 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가 두 집단 간에 상이한 결과를 보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집방식과 표본크기에 있어서의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친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과 미국상담자들의 경력에 따른 소진의 변화정도를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소진에 대한 대처와 예방방안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초보상담자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표집 모두에서 자신의 상담능력에 대한 자신감(무능감)의 함양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급상담자는 한국의 경우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내담자 가치저하)에 대한 재교육이 요구되며 미국의 경우, 신체적으로 피로를 해소하는 방안과 직무환경에 대한 개선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를 소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요소로 수퍼바이저, 동료, 가족 등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여러 결과에서 연구된 바 있다(권이경, 2005; 박성호, 2001; 최혜윤, 2002). 즉, 이는 수퍼비전 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이다(고은하, 2001).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혹은 집단수퍼비전 과정에서 경력에 따라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를 위해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결과는 상담기관 관리자(행정가)에게 상담경력에 따라 어떤 영역에 초점을 두어 상담자의 복지를 고려해야하는지 또한 어떤 영역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윤미와 그녀의 동료들(2002)들은 상담자들의 소진예방을 위해서는

기관 관리자(행정가) 차원에서 상담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담기관 관리자(행정가)는 상담경력에 따라 상담자-내담자 비율 조정, 중간휴식제공, 스트레스가 많은 상담외의 기타 업무의 제한, 조직적 유연성 증가, 직원훈련제공,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소진예방을 위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담자 소진을 상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하나인 경력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상담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미국과의 비교문화적인 접근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상담의 역사가 긴나라에 비해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도록 상담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현재 상담자의 소진수준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일례로 측정도구의 오차를 고려할 때 두 나라 간의 평균을 직접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담자 가치저하 척도의 경우는 미국의 상담자들($M = 1.52$, $SD = .49$)에 비해 한국의 상담자들($M = 2.27$, $SD = .58$)이 현격히 높은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는 한국의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미국의 상담자에 비해 더 냉담함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한국상담자의 경우 내담자 가치저하 변인과 상담경력간의 곡선적인 관계를 보이기에 특별히 한국의 중급상담자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실제에 대한 몇몇의 중요한 함의들을 지니고 있지만, 몇몇의 연구의 제한점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들의 상담업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 예를 들어 수입 및 근무환경, 상담의 종류와 같은 차이로 인해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경력에 따른 소진과의 관계에 있어 기존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매개 및 중개변인의 존재 여부, 그리고 새로운 매개 및 중개변인이 존재한다면, 그 변인들과 상담자 경력과 소진간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특성상 참가자가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을 짐작하여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특히 일반적으로 사회가 요구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외현적인 행동의 측면을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하며, 문항 답안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외에도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자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한 소진정도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상담자 경력과 소진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즉, 상담의 역사가 깊은 다른 문화권(예: 유럽)에서의 상담자 경력과 소진과의 관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 나라 간의 상담자 소진과 경력의 관계만을 비교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다른 문화권의 상담자 경력과 소진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좀 더 다양한 인종, 문화, 나라의 상담자들 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경력변수의 한계이다. 즉 상담경력을 년수로만 측정했다는 부분의 한계이다. 상담경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상담 횟수, 슈퍼비전 받은 횟수, 그리고 자격증 유무 등과 같은 상담자 발달 수준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이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상담경력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의를 통해 다양한 상담경력 관련 변인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몇몇 제한점을 극복하고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상담경력에 따른 소진 예방프로그램과 슈퍼비전 차별화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추후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하 (2001).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경험과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복순 (1996). 정신의료사회사업가의 소진실태와 대책. 사회복지개발연구, 2, 243-265.
- 권이경 (2005). 상담종결경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라 (2002). 특수체육지도자의 환경적 특성과 소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 최가영 (2000). 호텔종업원의 소진과 선행변인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9, 141-162.
- 김장섭 (2004). 고등학교 교사의 소진경험과 귀인성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1998). 한국과 미국의 상담심리학자들이 지각하는 지혜의 비교. 한국대학상담학회., 9(2), 217-243.
- 박성호 (2001). 상담의 직무환경에서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박재순 (2002). 병원근무 간호사의 소진과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 550-558.
- 박정혜 (2006). 상담자의 자기위로능력, 영적 안녕 및 상담자발달수준과 심리적소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헌애 (1999). 특수학교교사와 특수학교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현 (2005).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burnout) 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서영석 (2005). 내담자의 정서표현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비교 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35-351.
- 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2006). 상담경력수준에 따른 개인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 실제 및 만족도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7(1), 83-101.
- 신지음 (1990). 유치원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숙영 (1999). 유아교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19, 5-20.
- 여선영 (2005). 아동상담자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박성호 (2002). 상담환경의 위험요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89-400.
- 유정혜 (1997).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 (1983).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39-567.
- 이영란 (2006). 상담자의 소진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1982). 문화와 상담: 문화 지향적 상담을 위한 서론.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23, 119-144.
- 이혜련, 김봉환 (2004). 직업상담원의 소진현상과 작업환경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597-611.
- 임국환 외 (2003). 의료기관 행정직 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특성과 직장애착의 관계. 한국보건사회학회지, 14, 127-146.
- 장기보 (2003). 간호장교의 심리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 지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9-33.
- 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장연집, 박경, 최순영 (2003).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주은선 (1998). 한국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미국의 심리치료자들이 치료시 겪는 어려움과 대처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29-42.
- 조성연 (200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 한국생활과학회지, 14, 69-79.
- 최수형 (2004). 초등학교 통합학급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소진경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미, 양남미, 이지연 (2002). 상담자 소진 내용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581-598.
- 최혜윤, 정남운 (2003).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79-300.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전국청소년상담관련 기관 편람. 서울: 저자
- 한임순, 이순례, 김향자, 권용은 (1997).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 97-130.
- 한임순, 김향자 (1998).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과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4, 171-218.
- Ackerley, G. D., Burnell, J., Holder, D. C., & Kurded, L. A. (1988). Burnout among licensed psycholog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9, 624-631.
- Anderson, M. G., & Iwanicki, E. F. (1984). Teacher motiv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burnout.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0, 109-132.
- Butler, S. K., & Constantine, M. G. (2005). Collective self-esteem and burnout i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9, 55-62.

- Caplan, R. D., & Jones, D. (1975). Effects of workload role ambiguity and type A personality on anxie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 713-719.
- Caudill, W., & Weinstein, H. (1966). Maternal care and infant behavior in Japan and in America. *Psychiatry, 32*, 12-43.
- Cherniss, B. C. (1980). *Professional burnout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Cherniss, C. (1982). Cultural trends: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roots of the problem. In W. S. Paine (Ed.), *Job stress and burnout: Research, theory, and intervention perspectives* (pp.83-94). Beverly Hills, CA: Sage.
- Corey, M., & Corey, G. (1989).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
- Department of Labor. (2006). *Occupational outlook hand book*. Washington D.C: Author.
- Edelwich, A., & Brodsky, D. (1983). *Burnout: Stages of disillusionment in the helping professions*. New York: Pergamon Press.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 Society*. New York : Norton.
- Farber, B. A. (1990). Burnout in psychotherapist: Incidence, types, and trends. *Psychotherapy in Private Practice, 8*, 35-44.
- Farber, B. (1983). The effects of psychotherapeutic practice upon the psychotherapist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0*, 174-182.
- Freudenberger, H. J. (1974). The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 19-27.
- Freudenberger, H. J. (1975). The staff burnout syndrome in alternative institution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22*, 73-82.
- Gary, F. K. & Randi, D. K. (1989). Work load and burnout. *Social Work, 34*, 243-248.
- Heifetz, L. J., & Bersani, H. (1983). *Disrupting the cybernetics of personal growth: Toward a unified theory of burnout in the human service*. New York. Pergamon Press.
- Hellman, I., Morrison, T., & Abramowitz, S. (1986). The stresses of psychotherapeutic work: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197-205.
- Ivancevich, J. M., & Matteson, M. T. (1980). *Stress and work*. Glenville, IL: Scott Foreman.
- Jayaradne, S., & Chess, W. (1984).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turnover: A national survey. *Social Work, 29*, 448-453.
- Lee, S. M., Baker, C. R., Cho, S. H., Heckathorn, D. E., Holland, M. W., Newgent, R. A., et al.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s of the Counselor Burnout Inventor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0*, 142-154.
- Leong, F. T. (1992). Guidelines for minimizing premature termination among Asian American clients in group counseling.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17*, 218-228.
- Levesque, L. (1993). Why alert residents are more or less willing to cohabit with cognitively impaired peers: an exploratory model. *The Gerontologist, 33*, 514-522.
- Mahler, M. S. (1979). Separation individuation. *The select papers of Margaret S. Mahler, M.D., (Vol. II)*. New York: Japan Aronson.

- Maslach, C. (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aslach, C. & Leiter, M. P.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San Francisco: Jossey-Bass.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52, 397-422.
- McIntyre, T. F. (198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burnout, locus of control, and selected personal/professional factors in special education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Mills, L. B., Huebner, E. S. (1999). A prospective study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stressors, and burnout among school psychology practition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 103-120.
- O`Halloran, T. M., & Linton, J. M. (2000). Stress on the job: Self-care resources for counselor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 354-364.
- Pines, A., Aronson, E., & Kafry, D.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New York: Free Press.
- Pines, A., & Aronson, E. (1988).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New York: Free Press.
- Rijk, A. E., de, Blanc, P. M. Le, Schaufeli, W. B., & Jonge, J. de. (1998). Active coping and need for control as moderators of the job demand-control model: Effects on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1, 1-18.
- Rizzo, J. R., & Lirtzman, S. I.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 150-164.
- Romano, J. L., (1984). Stress management and wellness: Reaching beyond the offic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2, 533-537,
- Ross. R. R, Altmaier, E. M., Russell, D, W. (1989).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ing center sta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64-470.
- Schaddock, A. J., Hill, M., & C. A. H. van Limbeek. (1998).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in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3, 309-318.
- Siedentop, D., LaMaster, K., Gall, K., & Kinchin, G. (1988). Inclusion practices of effective elementary specialist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5, 64-81.
- Skovholt, T. M. (2003).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유성경, 유정이, 이운주, 김선경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1년에 출판).
- Sue, D. W. (1973). Ethnic identity: the impact of two cultures on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Asians in America. In S. Sue & N. N. Wagner (Eds.), *Asian American: psychological perspectives*.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usan, M. F. & Romeria, T. (1994). Burnout among crisis intervention counselors and its relationship to social support. *CACD Journal*, 14, 14-22.
- Uba, I. (1994).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 Um, M. Y., & Harrison, D. F. (1998). Role stressors, burnout, mediators, and job satisfaction: A stress-strain-outcome model and an empirical test. *Social Work Research*, 22, 100-115.
- Yu, K. (2007). *Development of a culturally valid Counselor Burnout Inventory in Korean counsel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 Yu, K., Lee, S-H, & Lee, S. M. (2007). Counselor's collective self-esteem mediates job dissatisfaction and client relationship.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4, 163-172.
- 원 고 접 수 일 : 2007. 12. 8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 25
게 재 결 정 일 : 2008. 2. 1

The Relationship Between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nd Counselors' Burnou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Counselors

Jayoung Lee Sukkyung Nam Hee-rak Park
Dong-hyun Kim Mi-kyoung Lee Sang Min Le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nd counselors' burnout. Specifically, 488 professional counselors in Korea and America (192 Koreans, 296 Americans), were surveyed. The relationship between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s reported by the participants and five subscales of the Counselor Burnout Inventory (CBI) was analyzed using curvilinear relations as well as linear relations model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the linear model for the two burnout subscales (Korean counselors: Devaluing Client; America: Negative Work Environmen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to exist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curvilinear model. For these variables, the curvilinear model's goodness of fit was better than that of the linear model.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re is a need for a multi-dimensional statistical model approach when examining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issue of counselors' burnout.

Key words :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counselors' burnout, comparison study, curvilinear model